



세션카드는 무지개 부엉이(@Rainbowl_D)님의 커미션입니다.

시작하며

추천 계제: 5계제

인원: 3인

리미트: 3사이클

사용하는 룰북: 대형판, 황혼선서

-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에서 차용한 신화를 소재로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원작 시를 읽지 않아도 진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 **PC 기관 추천: 원탁, 엽귀**
 - 그리스 로마신화의 소재(스크롤 시 보입니다.)를 차용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내에 잔인하거나 비윤리적인 장면의 직접적인 묘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해당 소재가 아예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 **시나리오 내 개변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허락은 따로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개요

평화로워보이는 지중해의 휴양도시 알비나에서 재앙의 전조가 읽힌다. 예지몽을 꾸 천애의 마법사는 그곳에 곧 흰색의 괴수들이 출몰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다는 미래의 파편을 읽는다. 한편 예지를 토대로 대법전 내의 자료를 조회하던 원탁의 마법사는 상상치 않은 전조를 읽고 5계제의 마법사를 소집하는데...

영겁의 시간이 흘러 이제 평안한 시대를 단노라. 우리는 끝나지 않는 비극 속에 살 것이라 선언한다.

사건의 진상

마스터링 하기 전 참고하기 좋은 원본 신화

인류의 다섯 시대: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A5%98%EC%9D%98_%EB%8B%A4%EC%84%AF_%EC%8B%9C%EB%8C%80

판도라의 상자:

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B%8F%84%EB%9D%BC%EC%9D%98_%EC%83%81%EC%9E%90

프로젝트 황금의 시대

이상향 내부의 프시케 보완 실험입니다. 프시케의 정신적 불안정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여러번 부활해도 정신이 붕괴하지 않는 강인한 마법생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십여명의 이상향의 마법사가 도시 알비나에 거점을 두고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요양원에서 빼돌린 임종 직전의 인간들을 실험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시대 중 황금의 시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늙지 않고 고통을 모르는 인간들은 판도라가 열은 상자에서 퍼져나온 고통과 환난들로 인해 이전에는 몰랐던 온갖 악한 것들을 알게되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멸종했다.’ 라는 것이 중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뿜어져나온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시 상자 안으로 회수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이라는 아이디어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이상향의 가설을 검증시켜줄 유사한 마법이 대법전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저서 【자연론】에 나오는 ‘진화’(황혼선서 172p) 입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상향의 마법사들은 ‘진화’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법전의 마법사이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였던 5계제 서공 원탁 「탐독하는 필로소포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무력으로라도 그녀에게서 관련된 자료와 연구를 탈취하려고 했던 이상향은, 의외의 협조에 그녀와 기묘한 협력관계를 갖게 됩니다.

탐독하는 필로소포스 (인계명: 요안나 블라제비치)

대법전의 5계제 서공 원탁이자 금서가 된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 후자의 소개는 그녀의 불명에 중 일부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진 않습니다. 대법전에 오래 소속되어 있었으며 제자들도 다방면으로 제법 많은 편입니다. 무언가를 탐독하고 연구하는 일에 맹목적입니다. 꽤 오랜 세월을 마법사로 살아왔기에 인간의 형질이 흐려진지는 꽤 되었습니다. 우자들을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며 열등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고통에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우자를 위하는 대법전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연구에 쓸만한 장서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닥 호전적인 성질이 아니었던 것도 한몫 했습니다. 종종 우자들을 위하는 일을 해야하긴 했지만 유능한 5계제 마법사인 그녀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학파의 이념에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상향의 연구에 협력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가설과 연구 설계가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대법전의 장서 보유량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도 선택에 한몫 했습니다. 그녀가 연구하던 장서들 중에서도 대파괴와 함께 사라진 것들이 많았고, 학파는 이전보다 쇠퇴했습니다. 이에 굳이 대법전에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다만 대법전에 전적으로 척질 필요는 없었기에 공식적인 학파 이탈의 의사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조용히 실종되었던 척 대법전에 복귀할 셈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상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인간의 허리쯤까지 오는 커다란 항아리입니다. 이 실험에 활용되는 주된 마법도구이기도 합니다. 진화는 세계의 계제를 올리는 광범위하고 거대한 마법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마법이 정확하게 전수되고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프로젝트에 활용된 마법은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탄생한 그 경량판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세계 전체에 마법을 거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 그 술식을 걸어 활용하였습니다. 노쇠, 고통, 질병 등을 상징하는 산 제물을 데려와 그들을 타오르는 자로 만들어 항아리에 가둡니다. 그 상태로 항아리 안에 완전히 그 개념이 소각된 공간을 만듭니다. 이 안에 프시케를 넣고 부정한 개념이 그 개체에서 소거되도록 바깥에서 마법적인 힘을 불어넣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만큼 셀 수 없는 타오르는 자가 희생되었습니다. 항아리의 마법적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해 불태운 프시케의 수 또한 많습니다. 이들의 방식은 점점 개선되어 이제는 정말 노쇠와 고통과 질병 등 온갖 부정한 것들을 프시케로부터 소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성 직전인 것이지요.

실험체 프시케

태초의 낙원에 돌아다니는 프시케들은 아직 마지막 단계의 진화를 거치지 않은 실험체들입니다. 예지몽에서 관측된 것의 전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개념인 '어리석음'을 제거해야하는데, 해당 개념의 타오르는 자에게 문제가 있어 판도라의 상자 보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를 거치지 못한 프시케들은 어리석으며,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이들은 관리자인 이상향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부르며, 자신들을 보살펴준다고 믿습니다.

무대

휴양도시 알비나

평화로워보이는 지중해의 휴양도시 알비나. 유동인구가 적고 관광객도 찾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으며, 몇십년 전에 작은 요양원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한 도시입니다.

이경: 태초의 낙원

이상향들의 실험을 진행하는 작은 이경입니다. 전반적으로 나무와 풀숲으로 우거진 자연의 공간입니다.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은 독로를 통해 이곳을 드나들며 실험의 결과물인 프시케들이 여기저기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경 구석구석에는 연구에 필요한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NPC

의사 디디에

요양원을 총괄하는 의사이자 프로젝트 황금의 시대에 참여한 이상향의 구성원입니다. 요양원에서 곧

임종이 가까워진 노인을 추려 빼돌리고, 더미인형에 마법을 걸어 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일을 합니다. 성질이 불같고 의심이 많습니다.

5계제 서공 원탁 「탐독하는 필로소포스」

기본적으로 온화한 표정이나 감정의 고저가 잘 드러나지 않는 편입니다. 종종 열등한 것을 멸시하는 듯한 발언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종종 자신의 실수에 농담이라고 덧붙이기는 하나 예리한 사람이라면 그녀의 성정을 눈치채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입 페이지

세 사람을 호출한 원탁의 마법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천애의 예지몽에 따르면, 지중해 도시 알비나에 흰색의 괴수가 나타나 우자를 습격한다고 한다. 물리력으로는 제압되지 않으며, 죽어도 다시 재생되는 탓에 제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예지몽을 전달한 후 도시에 과거에 보고된 이상 조짐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관련된 보고서를 훑었다며 추가자료를 내입니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두가지 사안입니다.

- 한달 전 3계제 학원 소속 방문자의 면담기록. 아이는 마법에 소질이 있어 대법전에서 교육받고 있지만 가족들은 전부 인계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앵커로 둔 할머니가 도시 알비나에 있는 요양원 슈텐베르겐에서 사망했는데, 앵커의 닳을 내린 것이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GM정보: 판도라의 상자를 실험하는 데에 쓸 프시케로 만들었습니다.)

- 3년 전쯤에 도시 알비나에서 실종되었던 5계제 서공 원탁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의 기록.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인계명 요안나 블라제비치로 한 금전 거래 내역이 이 도시에 남아있는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대법전에 대한 공헌도 오래된 사람이고 (대법전에 소속된지 대략 2000년) 그녀의 제자들이 절대 이유없이 사라질 마법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실종 명부에는 올려놨지만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다.

(GM정보: 그녀가 한 마지막 금전 거래는 요양원 후원 내역입니다. 천문학적인 후원금으로 의사 디디에를 요양원에 꽂아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제시한 원탁의 마법사는 사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혹여나 예지몽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처해질 위험의 정도와, 이전의 실종 기록 등을 종합하여 사태를 바라보건대 심상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조사 도중 당신들의 판단으로 즉결 처분을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관리자 급의 인원으로 분과회를 꾸린 것이니 각자의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한다.

핸드아웃 <요양원 슈텐베르겐>,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을 공개합니다.

메인 페이지

휴양도시 알비나

[1] 어디선가 새 지저귀는 소리와 도란도란한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재액이 들이닥칠 곳 이라기엔 너무 평화롭지 않은가. 노래 마소 1개가 발생한다.

[2]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며 불편한 거동으로 계속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별마소 1개가 발생한다.

[3] 바닷바람이 머리를 전부 헹글어놓는다. 임무만 아니었더라면 제법 괜찮았을 풍경인데... 힘 마소 1개가 발생한다.

[4] 뼉, 뼉, 뼉, 요란스러운 기계음 소리와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겹친다. 응급상황이다. 어둠마소 1개가 발생한다.

[5] 눈 앞으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간다. 뒷모습을 황망하게 쳐다보니 생선을 물은 고양이이다. 짐승 마소 1개가 발생한다.

[6]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다. 꿈 마소 1개가 발생한다.

태초의 낙원

[1] 어디선가 짐승인듯 사람인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크고작은 사고를 치며 서로를 헐뜯는다.

[2] 쿵, 쿵, 쿵, 하는 걸음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린다. 아무래도 그것들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듯 하다. 장면 플레이어는 정적으로 판정한다. 실패할 경우 이번 장면의 모든 판정에 -1의 수정을 적용한다.

[3] “어머니! 부정한 것들이 끔찍하게 기어다니고 있어요! 아아악!” 우리를 발견한 그것이 비명지른다. 긴 팔을 무자비하게 휘두른다.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플레이어는 무작위 판정을 한다. 실패할 경우 【마력】을 1점 잃는다.

[4] 평화로운 호숫가. 인적하나 느껴지지 않는 공간. 잠시 숨을 돌릴 순 있겠지...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플레이어는 《치유》 각인 판정을 할 수 있다. 성공할 경우 【마력】을 1점 회복한다. 이 효과는 한번만 발생한다.

[5]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이 덜떨어진 자식들!” 관리자라 보이는 듯한 마법사가 그것들에게 화를 내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그는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듯 하다.

[6] 마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초를 선 공간을 발견한다. 중요한 것이 있어 보이지만... 무엇을 지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마스터씬1: 임종

조건: 핸드아웃 〈요양원 슈텐베르겐〉을 조사한다.

등장: 전원

당신이 각인을 막 흘려보낸 참에, 근처의 분위기가 소란스럽게 변합니다. 어디선가 호출을 받고 달려가는 의사, 먼 개인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삶의 끝에 가까운 이들이 모인 곳이라서 일까요. 이방인인 우리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익숙한 표정입니다. 간혹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그를 담담하게 위로하는...

그런 풍경속에 어색하게 섞여있다보면 당신은 이질적인 마력의 덩어리를 느낍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법생물? 이단자? 그것도 아니면 마도구? 그것을 좀 더 구체화 하기 위해 그 이질감을 뒤쫓아가면... 금방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떠난 이의 병실 앞입니다.

들어가볼까 눈치를 보던 찰나에 당신은 직감적으로 물러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병실의 문으로 성큼성큼 성급하게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 몸을 숨겨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광 열고는 주위를 살핍니다. 인상을 찌푸린 노년의 의사입니다. 그의 목에

걸린 카드에는 ‘의사 디디에’ 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

그는 한번 더 살벌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곤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핸드아웃 <의사 디디에>를 공개합니다.

마스터씬2: 습격

조건: 핸드아웃 <의사 디디에>를 조사한다.

등장: 전원

당신이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각인을 퍼트리면,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우리를 노려봅니다.

“어디서 기어들어온 놈들이든 살아 돌아갈 생각은 마라!”

그는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우리에게 마법전을 신청합니다.

마법전에서 **PC**가 패배했을 경우: 그는 패배한 마법사를 지배 앵커로 삼고 이경 태초의 낙원으로 가는 독로를 열어 도망칩니다. 의사 디디에는 상사에게 **PC**들의 존재를 보고하려 합니다. 이 경우 남은 **PC**들은 다음 장면에서 그를 곧바로 추격해 그에게 한 번 더 마법전을 걸 수 있습니다.

의사 디디에와 두번의 마법전을 할 경우 장면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애너미를 유동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제일 나은 방법은 마스터씬 조우에서 탐독하는 필로소포스가 **PC**들을 선공하도록 연출해 장면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법전에서 **PC**가 승리했을 경우: **PC**가 지배앵커를 쫓는다는 전제 하에 그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내놓습니다.

- 무슨 목적으로 환자들을 빼돌렸는가? 실험을 위해서이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내부 연구 인원이 아니라 모른다.
- 무슨 실험인가? 우리는 그 실험을 황금의 시대라고 부른다. 프시케의 개조를 위한 실험이다. 낙화 시 너무 쉽게 붕괴하는 정신을 보강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 내부 연구 인원들은 어디있는가? 독로를 통해 갈 수 있는 이경에 있다. 독로는 내 개인 진료실에 있다.
- 요안나 블라제비치 (또는 「탐독하는 필로소포스」)를 아는가? 얼굴을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는 걸 들은 거 같은데... 나는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 망할 놈들이 끼워주질 않아서.

그의 진료실에는 무수한 책들이 꽂혀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책 한권을 뽑아냅니다. 그가 독로라고 내민 것은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입니다. 책갈피를 꽂아둔 곳을 읽으면 될 것이라 하네요.

제일 책 잘 읽을 것 같은 **PC**에게 아래 문구를 물밀로 쑤셔넣어주며 낭독하라고 합시다. (추천: 사서)

제대로 그리고 능숙하게. 그대는 이를 명심하라.

그것은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은 한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오.

올림포스의 집들에 사시는 불사신들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필멸의 인간 종족은 황금 종족이었소.

- 일과 날 107~110행, 헤시오도스 (천병희 역)

독로를 읽으면 이경 '태초의 낙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면표를 꺼내주세요.

태초의 낙원 진입 시 핸드아웃 <흰 색의 괴수?>, <태초의 낙원>을 공개합니다.

마스터션3: 조우

조건: **PC**가 동굴에 간다고 선언을 한다.

등장: 전원

조심스레 동굴 앞으로 향하면 그 앞에는 아무도 지키고 서있는 마법사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는 거 같기는 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은 시설인걸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동굴 안쪽을 살피고 있으면...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명? 두명? 이정도면 제압할 만 하지 않을까요?

신중한 판단하에 PC들이 진입하면 그곳에는 실종되었다던 「탐독하는 필로소포스」가 여러분을 뺨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법전의 마법사인가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킹으로는 아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프시케를 연구하는 이상향의 우리에게 몇년 전에 납치당했다. 당시 대여섯명이 되는 마법사의 습격을 당해낼 수 없어 패배했고, 그 이후 지배된 상태로 그들의 연구에 일조했다. (GM정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녀에게 지배의 닳을 내린 이상향의 마법사는 없습니다.)
-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왔는가? 프시케의 ‘정신’ 보강을 도왔다. 프시케의 작동 원리를 아는가? 인간과 단장을 결합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으나 그들의 정신은 너무나 미약해 몇번 사망하고 나면 그들의 쓸모를 망각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더 견고한 인간의 정신을 만들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 어떤 방식으로? 나의 스승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저서이자 그가 구사하는 마법중에는 ‘진화’라는 것이 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그 세계에서 제물이 상징하는 개념을 소거시키는 방식으로 세계의 계제를 올리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거대한 마법을 실행시킬 수 없었기에 우리는 ‘도구’를 활용해 각 개체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 어떤 도구인가?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온갖 부정한 것이 세계로 퍼져나왔다는 신화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정한 것들을 판도라의 상자에 하나하나 주워담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주워담은 판도라의 상자에 프시케를 넣어 부정한 개념을 다 소거해내면, 조금 더 고등한 생물체가 된다.

당부드리는 점: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의 배반 여부를 PC들이 가려내는 것 또한 이 시나리오의 주된 기믹이기도 합니다.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의 거거를 권장하며 일부러 한 장면을 비워놨습니다. (흰색의 프시케 데이터는... 눈속임입니다. 5계제쯤 되면 룰적 구성으로 인물의 역할을 가리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해 넣어놨습니다. 혹여나 정말 프시케를 처리하려는 선량한 마법사가 있다면 한번쯤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단서는 도입에서 주어진 ‘거액의 후원 내역’과 의사 디디에에게서 조킹으로 얻을 수 있는

‘협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도입의 힌트는 의심을 품게 할 만한 단서일 뿐 PC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할 만한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녀와 직접 대면하는 이 장면에서 PC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노골적인 어휘를 활용해주세요.

대화 끝에 그녀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렇지만 도구에 의존한 마법은 비교적 파훼가 쉬운 축에 속하지요. 그 도구를 파훼하면 그에 부수한 작용들에 균열이 일어나 손쉽게 지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이라 하는 남쪽의 굴 안쪽에 판도라의 상자를 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두어명 정도가 지금 그 앞을 지키고 있을 것이고요.”

“그들을 해치워도 입구는 닫혀있을 것입니다. ‘불’ 각인을 일으키며 외치십시오. ‘프로메테우스의 전령이 왔으니 문을 열어라.’라고.”

“안에는 지키고 서있는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제단까지 내려가 판도라의 상자를 찾으십시오. 여기로 가져오면 도구를 파훼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죄를 씻는 건 어떤가요, 대법전의 마법사들이여.”

핸드아웃 <제단>을 공개합니다.

<이상향의 마법사>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클라이막스 페이지

「탐독하는 필로소포스」를 지배 앵커로 들었거나, 혹은 그녀를 의심하지 못했더라도 정보를 원활히 줄 것 같은 상태일 때 그녀의 지시를 따라 ‘판도라의 상자’ 파훼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려한다면, 깃들어있던 인간이나 어쩌면 마법사의 혼이 이끌려 나올 것입니다. 매어둔 개념을 풀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것의 마법적인 힘을 소거해 온전히 관념만을 내보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게는 몇년동안 매어둔 것도 있어서, 그동안 부정적인 것들이 제법 증폭되었을 것이거든요.”

“온전히 소거해내지 못한다면 바깥에 있는 것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할 수 없군요. 준비 되었나요?”

PC들의 준비가 끝나면 「탐독하는 필로소포스」는 향아리 앞으로 나서며 주구를 영창합니다.

“영겁의 시간이 흘러 이제 평안한 시대를 달노라. 우리는 끝나지 않는 비극 속에 살 것이라 선언한다.”

(GM정보: 혹여나 「탐독하는 필로소포스」를 소멸시켰다면 위의 과정은 동굴 내에 있었던 연구 기록이나 보고서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해주세요.)

엔딩

「판도라의 상자」와의 마법전에서 승리한 경우

견고해보이던 향아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틈새 사이로 스멀스멀 검고 부정한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의심하는 찰나에 귀를 틀어막아야 할 만큼 엄청난 비명소리와 함께 온갖 부정한 개념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불화, 질병, 고통, 노화... 그것이 퍼져나가자 바깥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상황을 파악하는 듯 당혹스러워 보이는 이상향의 마법사들과 비명지르며 붕괴하는 프시케들이 있습니다. 백색의 영원은 부정한 것에 더럽혀져 검게 물들고,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형태를 찾으면... 인간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형태요.

이상향의 마법사들은 동굴 밖으로 나온 우리와 마주치곤 사태를 파악한 것인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한고비를 넘었을 뿐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향의 마법사를 잡아들인다는 룰풀을 할 경우 다이스를 굴려 1d10만큼의 이상향의 마법사들을 검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3명에서 스무명 남짓한 인원을 다 검거할 순 없겠지요. 이후에도 도주한 잔당이 있어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긴 하지만 초동 수사에서 많은 단서를 얻을 수록 수사는 편해질 것입니다.

진화시켰던 프시케들은 우자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단장과 엮여있는 형태를 하나하나 다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프시케를 만드는 데 사용한 금서도 회수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 파훼로 많이 악화되었기에 이번 분과회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의 4계제가 고생을 할 예정이겠지요.

연구에 사용한 자료들은 회수하고 위험한 자료들은 전부 폐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진화’에 대한 것이라도요. 검거한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의 처리는 분과회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처리해주세요. 원탁으로 돌려보낼 경우 100년의 근신, 엮기로 넘길 경우 100년의 징역을 생각했으나 대법전 해석은 각기 다르니까요.

이경 태초의 낙원에 남아있던 프시케가 수습되며 도입부의 상담기록지로 등장한 3계제 학원생은

앵커였던 할머니가 상흔이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과와 그에 대한 대처를 들으며 마법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분과회는 그 학원생이 서경이 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판도라의 상자」와의 마법전에서 패배한 경우

파삭,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으나 그것은 아직도 견고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더 필요로 한다는 듯 그 안에서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커집니다. 주권 밖으로 내뱉어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에서 퍼져나오는 소리에 사태를 파악한 이상향의 마법사들이 분과회를 포위합니다. 1d3을 굴려 나온 수 만큼 독로를 사용해 긴급탈출할 수 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이들은 이상향의 마법사에게 제압당해 지배앵커로 들어집니다.

이들은 대법전이 프로젝트를 알아차렸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하여 곧 인계의 하늘은 흰 색의 괴수로 덮일 예정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마법사들의 진술에 도움을 받아 이전보다 수습이 쉬워지겠으나...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후입니다.

핸드아웃

핸드아웃1. 〈요양원 슈텐베르겐〉

한적하고 연간 기온이 일정한 지중해 도시 알비나의 요양원 슈텐베르겐. 학원생의 할머니가 말년에 머물렀다고 한다.

비밀: 별 일 없어보이는 것도 잠시, 어쩐지 기묘한 마력의 흔적이 느껴진다.

마스터씬1 〈임종〉이 발생한다.

핸드아웃 〈의사 디디에〉를 공개한다.

핸드아웃2. 〈「탐독하는 필로소포스」〉

5계제 서공의 원탁, 「탐독하는 필로소포스」. 대법전에 오래 소속되어 있었으며 제자들도 다방면으로 제법 많은 편이다. 그러나 몇년 전 이 도시에서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비밀: 당신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자연론〉의 저자이자 그 자체인,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라는

정보를 당신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다. 이는 그녀의 불명예이기 때문에 잘 언급되지는 않는다.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핸드아웃3 <의사 디디에>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갈피를 어떻게 잡는가인데...

그는 분명 마력을 읽는 것 같았는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면 조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비밀: 그럼 그렇지! 쟁기는 짓 하는 놈들은 눈치가 빠르다더니. 그가 우리를 제압하려는 듯 한다.

마스터씬2 <습격>이 발생한다.

핸드아웃4 <흰 색의 괴수?>

흰 색의 괴수들이 동동 떠다닌다. 어디선가 악을 쓰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가만히 들어보면 고등한 생물체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천애의 마법사가 보았던 괴수들일까?

비밀: 당신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마법생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단장과 인간의 결합체, 프시케. 그러나 보통의 프시케는 인간의 형상일텐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걸까.

에너미 <흰 색의 프시케>의 데이터를 공개한다.

핸드아웃5 <태초의 낙원>

푸른 색의 식생들과 알 수 없는 괴수로 채워진 이경. 이들밖에 없는 걸까? 어디를 둘러봐야 좋을까.

비밀: 몇몇의 '시설'들이 대강 워힌다. 이상향의 마법사들이 모여있는 회의장 같은 장소. 마법사가 지키고 서있는 깊은 굴, 그리고... 어쩐지 인적이 느껴지는 동굴이 있다. 이중에서 잠입한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장소는 동굴 정도이지 않을까.

핸드아웃6 <제단>

모든 거사가 진행된다는 제단. 그곳에 입장하려면 특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핸드아웃의 판정은 《불》 각인으로만 가능하다.

비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불을 밝혔는가. 제단 끝에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커다란 항아리가 자리하고 있다. 항아리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하나... 듣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에너미 데이터

[Rank 6] 탐독하는 필로소포스

공격력 5 방어력 6 근원력 6 마력 10

영역 힘

특기 《혼돈》, 《중력》, 《충격》, 《불》, 《거짓》

진정한 모습 세계수 효과 마력해방

훈의 특기 《탐독》

장서: 【긴급 소환】 소환, 【기사 소환】 소환 《혼돈》, 【중압】 주문, 【철퇴】 주문, 【해격】 주문, 【후원】 장비

[Rank 6]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자 (의사 디디에)

공격력 5 방어력 5 근원력 5 마력 9

영역 어둠

특기 《분노》, 《충격》, 《광기》, 《심연》, 《불행》

진정한 모습 은색의 늑대 효과 정신 집중

훈의 특기 《헌신》

장서: 【마검 소환】 소환 《분노》, 【분신 소환】 소환, 【습합】 소환, 【보수】 주문, 【탈 것】 장비, 【괴완】 장비

(GM정보: 마법전 시 탈 것으로 꺼내 둔 분노의 전차를 필드에 놓고 시작합니다.)

[Rank 5] 흰 색의 프시케

공격력 4 방어력 5 근원력 5 마력 8

영역 어둠

특기 《외침》, 《원환》, 《불안》, 《악의》

장서: 【정령 소환】 소환 《원환》, 【괴력】 주문, 【회오】 주문, 【홍조】 장비

[Rank 6] 이상향의 마법사

공격력 5 방어력 5 근원력 5 마력 9

영역 힘

특기 《흐름》, 《우레》, 《승리》, 《시간》, 《배신》

진정한 모습 시곗바늘이 반대로 가는 시계 효과 공격 강화

훈의 특기 《영속》

장서: 【긴급 소환】 소환, 【처녀 소환】 소환 《승리》, 【뇌격】 주문, 【보복】 주문, 【구가】 주문

[Rank 6] 판도라의 상자

공격력 6 방어력 5 근원력 6 마력 28

영역 짐승

특기 《혼돈》, 《분노》, 《충격》, 《수수께끼》, 《불행》

장서: 【긴급 소환】 소환, 【처녀 소환】 소환 《수수께끼》, 【불길한 예언】 주문 (대형판 178p), 【마탄】 주문, 【개조】 주문, 【원념】 주문

후기

3계제에서 만나 5계제까지 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 사이의 분과회와 가려고 적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모로 내용이 많아 이해가 어려우리란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밖에서 돌아갈까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나... 5계제 시날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냥 세상에 내놓습니다. 원본의 신화를 정독하면 어느정도 갈피가 잡힐테니 첨부해둔 링크를 잘 활용해주세요.

음... 원탁 돌, 엽귀 하나(+GMPC 문호 하나 그러나 도입부에 버려진)로 구성된 분과회를 기준으로 재밌을 법한 이야기를 적어둔 것인데... 일단 저희 탁의 후기를 말씀드리면 친구들이 제법 적폐 뿌리뽑기에 진심이었습니다. 첫 사이클 정도에서 이미 탐독하는 필로소포스를 봉사해서 데려와야할지

소멸시켜야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인 저조차도 적어둔 시나리오의 방향보다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진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제법 유동적인 시나리오이니 분과회의 분위기에 따라 마스터님의 즉석 철폐 기술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파이팅!

탐독하는 필로소포스의 롤플레이 대사를 조금 적어둘까 하다가 비워두었습니다. 세 명의 PC를 상대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가 PC가 지나온 세션, 가치관, 경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미리 적어두는 것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조금 신경써서 적폐 NPC를 잘 굴리면 마법사 친구들의 깊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으실 것이란 응원만 남겨둡니다.

시나리오의 감성이 제법 일관적이게 마이너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즐거운 이야기를 쓰다보니 언제나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적게 되네요. 부족한 점이 많은 이야기지만 모쪼록 즐겁게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즐거운 티알피지 되시길 바랍니다.